대학원 '현대예술감상특강' 주최
영화·연극·문학 관계 전문가 초빙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현대예술감상특강'을 실시한다.

3명의 강사가 초빙되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강연은 유지나(영화학박사)씨의 '영화의 탄생에서 현재까지'에 대한 강의를 필두로 김창화(연극학박사)씨의 연극·희곡의 이해와 여사, 김종회(문학 박사)교수의 문학의 장르와 특성에 대한 강의가 오는 12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공연 윤리 위원회 영화 본 심의위원 및 고려·중앙대학교 강사로 재직중인 유지나씨는 오는 10월 6일까지 4주간 영화의 전반적 이론에 관한 강연을 가질 계획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제목	내용
9. 8	영화의 탄생에서 현재까지	예술 영화 중심으로 본 영화사
9. 15	영화 문동론	네오 리얼리즘과 누벨 바그에서 두뱅 이마휴까지
9. 22	영화	남성이 만든 여성상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영화
10. 6	제3세계 영화와 한국영화	할리우드 지배영화 속에서 살아남기

모집부문은 고황문학상(시, 소설, 희곡, 평론), 학술논문, 문예창작문(꽁트, 마당극 대본, 만화, 노래, 그림), 현실평론 등이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고황'편집실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고황, 원고 모집 논문, 문예물 등

교지편찬위원회 '고황'은 42·호 교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한다.

수원총여 엽서배부 경인총련 참여유도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오는 16일 자체 제작한 2천장의 엽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배부된 엽서는 학생들의 경인총련 출범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우들이 경인총련 건설에 바라는 바와 김성규(건축공·4, 총학생회장)경인총련의장에 대한 위로의 글을 담아 김의장에게 보내진다.

체과대 학생회 주최 생활체조회 강습

체육과학대학 학생회는 오늘부터 체조강습회인 '정회 생활체조회'를 연다.

'정회 생활 체조회'는 취미반과 취업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취미반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체과대 실내 농구장에서 실시되며 생활 에어로빅 체조, 심신수련 체조,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취미반은 교수·학생·직원 등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취업반은 체육학과·태권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수·금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체과대 무용실에서 열린다.

'손짓 사랑회' 수화교실 개설

수원캠퍼스 수화동아리 '손짓사랑회'에서는 수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화교실을 개설한다.

학기초마다 한번씩 개설하는 수화교실은 전문강사 박미희씨가 수화의 기초를 가르치며 13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5시 30분에서 7시까지 외대 강의실에서 있게된다.

수원 회계학과 장학서클 선발

수원캠퍼스 회계학과는 공식 동아리외 일반 스터디그룹 등 활동내용에 상관없이 회계학과 내에서 활동중인 모든 모임을 대상으로 장학동아리를 선발한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장학동아리 선발에 신청하려는 동아리는 동아리 설립목적, 활동내용, 연혁, 앞으로의 활동내용 등을 회계학과 사무실로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계 태권도 남녀동반 우승
박세진, 임영호, 이승민 체급별 1위

지난 8월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서 본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남자부는 라이트급의 박세진(체과대·태권도4)선수, 웰터급의 임영호(체과대·태권도3)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이승민(체과대·태권도2)선수가 페더급 1위를, 박정숙(체과대·태권도1)선수가 라이트급 2위를 차지해 남녀부 종합 우승의 커다란 견인차가 되었다.

풍물패 '한얼' 신입회원 모집

문리대 풍물패 '한얼'이 회원을 모집한다.

한얼은 풍물과 민요, 마당극에 관심있는 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 12시에 공대 4층에 있는 동아리방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영화와 가을이 있는 풍경"
프로메테우스, 진보영화 상영

프로메테우스 동아리연합회 지부는 진보대학생을 위한 '영화와 가을이 있는 풍경'이란 이름으로 영화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후 2시와 5시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상영되며, 입장료는 5백원이다.

상영되는 영화는 다음과 같다.

▲제임령: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이브 몽땅 주연. 20년만에 해금된 본격 정치 미스테리 수작 ▲레즈(REDS):워런 비티 감독, 주연. 러시아 혁명을 다룬 '세계를 뒤흔든 10일'을 쓴 존 리드의 생애를 그린 ▲1900년:제라르 드 빠띠유 감독, 로버트 드 니로 주연. 이탈리아 혁명기의 사상적 대립을 통해 인간성 회복 추구 ▲닥터 노먼 베쑨

가을을 맞아 학생들에게 역사와 자기자신에 대한 사색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번 영화제는 아울러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의 원상복직을 위한 투쟁위원회의 기금 마련과 프로메테우스 발족식에 앞선 문화행사로서 기획된 것이다.

◇여학생 휴게실 단장

학생회관 3층에 자리하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이 2학기 개강을 맞아 새롭게 단장됐다. 총여학생회는 삭막하던 여학생 휴게실을 방학동안 정성껏 꾸며 지난 7일 선보이고 입방식을 가졌다

본교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및 내역

본 내역은 본교 발전기금 접수 개시일인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접수된 내역으로 게재순서는 부순이며, 앞으로 접수되는 모든 기금출연내역은 본보 지면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편집자 註)

□동문

▲이병희(총동창회장): 금일봉 ▲율풍근(동문회 고문): 3천만원 ▲정태류(동문회 감사): 2천만원 ▲김상혜(여성동문회 고문): 1천만원 ▲유양상(동문회 부회장): 5백만원 ▲차봉오(대학원 동문회장): 5천만원 ▲박민식(동문회 부회장): 5천만원 ▲주 아르헨티나 동문회장: 24만원 ▲주종필(외대동문): 1백만원 ▲한정재(지리학과 동문): 5만원

□학부모

▲정현채: 5백만원 ▲김진도: 1백만원

□재학생

▲김덕권(대학원 무역학과): 5만원 ▲신복순(대학원 사학과): 5만원

□개교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박기서(위원장): 5백만원 ▲서청석(간사): 3백만원 ▲김만예(위원): 2백만원 ▲김진호(위원): 2백만원 ▲김봉인(위원): 3백만원 ▲박재호(위원): 2백만원 ▲오륙열(위원): 2백만원 ▲이주희(위원): 2백만원 ▲이헌국(위원): 2백만원 ▲신현철(위원): 2백만원 ▲정복근(위원): 1천만원 ▲서의영(위원): 2백만원 ▲한동명(위원): 2백만원 ▲이수의(위원): 2백만원 ▲유승희(위원): 2백만원 ▲이용호(위원): 2백만원

朔風
'국민보건'과 '밥그릇'의 우선 순위는?

연일 서로가 옳다고 대책회의나 집회다 뭐다해도 한의사나 약사가 아닌 이상 본노외엔 달리 느낌이 없다. 때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싸움'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찬반양론이 무성하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어지러운 복마전이다. 규칙도 없고 상대편에 대한 의지도 없다. 무한 소모전의 양상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것인지 모르겠다. 양쪽다 국민건강을 위한 부정이라지만, 오히려 국민건강이 볼모가 된 듯 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복잡한 일은 아닌듯 하다. 약국에 한약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사실 소란이 일기전에도 약국에 한약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다. 약국에서 한약을 지어먹은 사람도 있고 '한약 조제'라는 문구가 버젓이 약국간판에 명시되어 있기도 했다.

대개의 사람은 그것이 위법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빠짱(?)좋게도 약사들은 실정법과는 상관없이 한약장을 설치하고 있었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보사부는 그저 묵인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한의사측도 눈만 멀뚱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이번사건의 구조가 아닌가 한다.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당당한 약사와 방관하는 한의사, 묵인한 보사부의 삼각구조가 깊은 갈등을 낳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이 여지껏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자체에 이런 구조가 깨져야 몰보가 된 국민건강이 풀릴 것이다. 그 대책으로는 우선 약사의 영업권역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사의 영업권역은 그동안 숱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슈퍼마켓하고도 수의사하고도 의사하고도 그 영토(?)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의약분업도 반대하고 동물병원의 현실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권리 주장에는 그리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답배와 답배끊는 약을 동시에 판매하는 이율배반성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사를 역시 어떤 이유에서 약사의 한약 조제를 반대하는지, 좀더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 약사에 비해 한의학적 경륜과 지식의 월등함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시장원리상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이는 한의원에서 조제한 약과 약국에서 조제한 약 사이의 가격차를 설명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품론 거의 주범(?)인 대접을 받고 있는 보사부는 편파성과 무소신을 청산해야 한다.

실상 외국에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통의학을 너무 홀대하고나 있지 않은지…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증간에 둔 싸움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선 안된다. 자기들만의 관점에서 '국민보건' 운운에 많은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있다.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진정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보도록 권고한다.

(견자)

알림터

교수동정

유동목 교수 방독

【서울캠퍼스】▲유동목(치과대·치의학)부교수=지난 8월 25일부터 내년 8월24일까지 초청교수로 독일 방문 ▲조인원(정경대·정외과)조교수=지난 8월30일부터 내년 7월30일까지 펜실베니아 객원교수로 초청받아 미국 방문 ▲김정주(체대·체육학)교수=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공동연구차 미국 방문 ▲주동준(문리대·화학과)부교수=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 발표차 중국 방문 ▲송정상(의대·외학)교수=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학회참석차 영국 방문 ▲최대균(치과대·치의학)부교수=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국제보철학회 및 어테크먼트연수회 참가차 스위스 방문

【수원캠퍼스】▲유재충(체육과학대·체육학과)=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핸드볼 선수권대회 참가 인솔차 이집트 방문 ▲오는 17일 11시30분부터 교부처장 주관하에 신임교수 학교안내가 3호관 세미나실에서 시행.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최대현(지리·1) ▲최승일(영문·1) ▲이월화(지리·4) ▲최민호(행정·2) ▲조만선(무역·4) ▲조정민(영교·4) ▲서혜정(영교·2) ▲최은희(식영·4) ▲오항준(식영·4) ▲이숙현(의예·1) ▲장연수(의대·90) ▲신선희(간호·3) ▲이중희(의본·1) ▲홍상준(치본·3) ▲박경식(치본·1) ▲이상복(치본·4) ▲신민철(치대) ▲이승열(치본·2) ▲한지영(치본·1) ▲박정순(치본·4) ▲송미정(약대·3) ▲남궁현(삼의원·418) ▲김영록(삼의원·319) ▲김도환(삼의원·423)

【수원캠퍼스】▲김은정(불문·4) ▲고영조(일문·4) ▲이혜영(서반아어·4) ▲김경원(서반아어·2) ▲김현수(서반아어·3) ▲조용복(경영·1) ▲김성원(행정·2) ▲김도형(기계·1) ▲김양호(기계·1) ▲김태균(기계·1) ▲조용기(기계·3) ▲조현제(기계·4) ▲차재천(기계·4) ▲김구택(건축·2) ▲김선연(전자·1) ▲김정훈(건축·4) ▲박성규(전자·2) ▲조상태(전자·2) ▲김영민(전자·4) ▲이기영(전자·2) ▲이용석(전자·3) ▲김대형(산공·3) ▲이재일(산공) ▲최형산(산공·1) ▲황상호(산공·2) ▲김은기(화공·4) ▲김재선(화공·3) ▲이상영(섬유·1) ▲남상옥(수학) ▲김창현(유전) ▲김용수(우주·2) ▲최봉관(유전·4) ▲이숙준(환경·2) ▲민동현(환경·4) ▲김현실(조경·4) ▲이동욱(임학·2) ▲조동욱(임학·4) ▲양경란(체육) ▲김용봉(체육) ▲박상민 ▲Youth-Hostel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경화(국문·92) ▲김영철(지리·88) ▲조승아(생물·92) ▲이은주(생물·93) ▲장미나(생물·93) ▲이제식(경제·86) ▲김용진(신방·93) ▲지재학(회계·87) ▲김현아(체육·92) ◇지갑=▲신수정(영문·89) ▲배신희(기악·88)

【수원캠퍼스】◇학생증=▲조정필(행정·90) ▲권관식(사회·93) ▲박종효(토목공·86) ▲송우빈(화학공·88) ▲신희종(기계공·93) ▲권태호(태권도·89) ◇지갑=▲김판호(체육·91) ◇가방=▲지난9일 강남행 스쿨버스 박차에서 가죽가방 ◇월통=▲빨간색·헝겊·사회대앞에서.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지갑=▲갈색지갑 지난1일 공대도서관 열람실

동문모임

영생고·성은여고 동문회

【서울캠퍼스】▲고려고 동문회=오는 16일 오후 6시 공대앞 놀타방 ▲해운대고등문회=오는 17일 오후 6시 정문앞 ▲마산고 동문회=오는 17일 오후 6시 대성관 ▲전남고 동문회=오는 17일 6시 제대앞 녹원 ▲서울 혜화여고 동문회=오늘 6시 전통찻집 녹원 ▲전주 영생고·성은여고=오는 17일 오후 8시 칼럼호프.

【수원캠퍼스】▲정읍·고창 향우회=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 ▲대전향우회=오는 16일 오후 5시30분 공대 휴게실 ▲현대고=오는 17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 ▲숭실대·숭의여고=오는 17일 오후 5시30분 공대 휴게실 ▲홍익 남·여고=오는 17일 오후 5시 공대 휴게실 ▲해운대고=오는 17일 오후 6시 회기캠퍼스 정문

SAM YANG GROUP

깨끗한 눈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책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지만
젊음이란 그것을 다 채우기엔
책만으로 오히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높고 큼으로 겸손의 미덕을
알려주고, 험준함과 불굴의 위용으로
강인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이땅의 산은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신과 같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삼양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응원의 격려를 보냅니다.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 ●제일 식품 ●보토 화인테크 ●삼양종합주조 ●삼양 T.C.S주식회사 ●삼양물산유통주식회사 ●삼양제약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지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제약 ●조일상호제약 ●삼양그룹종합연구소 ●한일 종합 부면 산업 ●삼양드라이빈주식회사 ●일진물산 ●일진전자